

공공의 이익

태국에서 에이즈치료제 강제실시를 이뤄냈던 경험을 반추

- 국제 단체들의 많은 지원
- 비교적 민주적이지 않았던 정치구조
- 미국과의 특수관계...실제 미국은 3번의 무역제제를 실시함.

(하지만 잠깐 수출이 줄었을 뿐,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줄지 않았음, 하지만 수만명의 감염인 환자의 건강을 가져왔음. 물론 이를 비교하기는 힘들.)

- 태국의 보건당국 관료들의 특수성... (공공의료현장에서 실제 에이즈환자를 겪었던 이들..)
- 이러한 차이들이 태국의 강제실시를 가능하게 했음.

이윤보다 생명을? 매력적인 문구인가??

상품으로서 의약품...창렬스럽다! 하지만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어.

자본으로서 의약품...투자에 따른 대가는 당연해! 혁신은 바람직해!

+ 신약은 너에게 구원이야!(매직 블릿!!)

공공재로서 의약품...의약품도 다른 상품처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!?

다국적 제약사의 동정적인 프로그램 (인도주의적 프로그램?)

단순히 이윤추구의 제약회사는 아님. 복합적...

의약품은 환자라면 당연히 주어져야하는 몫인지도 몰라...

선물은 주어야할 의무, 받아야할 의무, 되돌려줘야할 의무를 동반해!

의약품이 가지는 분배정의들...